앞산 경관에 반하고 뉴트로에 취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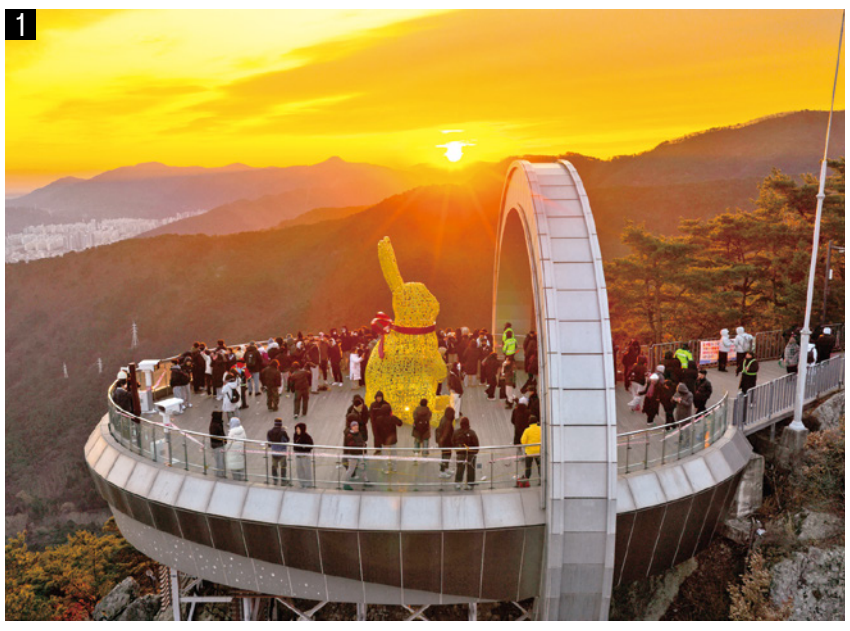
대구 남구 '힐링' 공간 속으로

50년 역사 앞산 케이블카·전망대
정상 올라가면 앞산 큰골 경관 등
황홀한 대구 시내 한 눈에 들어와
해가 질 무렵 '해넘이전망대' 북적

시민들의 휴식처 앞산 빨래터공원
체육시설·분수대·편의시설 갖춰져
가족·지인 단위 방문객에 인기만점
올해 지선 영향 7월 초순 축제 개최

커피 유행 지배한 '앞산 카페거리'
40여 곳 카페·레스토랑 등 한자리
전통 냄새 물씬 풍기는 주택 개조
아기자기하게 만든 개인카페 눈길

특별 문화공간 이천동 고미술거리
도자기·고가구·옛 민속품 등 전시
다양·독특한 골동품 경험 가능해
근처 벽화마을·사찰 서봉사 주목





1 앞산 전망대에서 본 일몰 풍경. 2 대구 전경을 배경으로 운행하고 있는 앞산케이블카. 3 빨래터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4 앞산자락길을 오르고 있는 시민들. 남구청 제공 5 이천동 고미술거리. 박성윤 기자







특색적 테마 품은 '앞산자락길'
맨발산책길 등 각종 코스 존재
도심 속 자연환경 풍부한 명소
정비된 덕 계절 변화 감상 가능

산업화와 아파트 문화 등의 영향으로 우리는 옛 선조들의 향기와 삶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

대도시 중심의 생활권 형성으로 대부분의 지역이 인구 소멸시대를 맞고 있다. 역사의 흔적이 묻어 있는 오랜된 집을 리모델링을 통해 생활하기 보다 상가나 공공시설 등 주상복합건축물로 활용되면서 우리들 역사의 향기, 삶의 흔적을 찾아보기는 이제 불가능하다시피하다.

이런 가운데 대구 남구는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매력적인 장소들이 군데군데 자리하고 있다.

앞산의 아름답고 독특한 경관부터 다양한 문화거리까지, 남구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에서 우리 선조들이 남긴 역사의 자취를 느껴본다.

◆앞산 케이블카와 전망대

이곳은 도시의 활기찬 기운과 자연의 평온함이 공존하는 대구의 숨은 명소다.

군위군 편입으로 전반적인 대구 영역이 넓어진 가운데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의 행정구역 개편은 쉽사리 예측할 수 없지만 앞산의 매력과 잠재력은 대구만의 특색있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앞산 케이블카와 전망대는 1974년 5월에 설치되었다. 50여 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곳으로 795m의 거리를 10여분 만에 오르내릴 수 있다. 90년 대와 2천년 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곳을 찾은 시민들과 관광객들로 주말이면 주차하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렸다.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에 올라가면 앞산 큰골의 자연 경관을 비롯해 대구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황홀한 경험은 힐링 그 자체다.

해가 질 무렵 앞산 해넘이전망대에서 보는 일몰은 대구 시내의 멋진 전망과 함께 감탄이 저절로 나온다. 남구 여행의 백미로 붉게 물든 하늘과 대구시 전경이 어우러져 영화속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다.

예전 같지는 않지만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이 이 장면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찾아오면서 대구의 명소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시민들의 쉼터, 앞산 빨래터공원

앞산에 오면 빨래터공원을 빠뜨리면 안되는 곳이다. 예전 도시 확장으로 기능을 잃었던 공간이 시민들의 휴식처로 재탄생했다.

이곳은 앞산에서 내래온 깨끗한 물이 항상 흘러 동네 아낙네들이 삼삼오오 모여 빨래하던 곳으로 대명동 시민들의 정을 나누는 공간이었다.

예전에 이곳 주변은 시민들이 많이 거주하였고 또한 왕래가 잦은 곳으로 단순한 공원을 넘어 대구 시민들의 추억과 현재가 공존하는 특별한 장소이다. 공원 내에 해넘이 전망대가 자리하고 있어 해넘이 풍경과 대구 시내 야경도 함께 즐길 수 있다.

공원을 둘러보면 체육시설, 분수대, 각종 편의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어 가족, 지인 단위 방문객들에게 인기가 많다.

해마다 4~5월경에는 앞산 빨래터 축제가 열려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먹거리를 제공하는데, 이 축제는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의 장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전통 빨래 체험, 문화 공연, 먹거리 장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대구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축제 기간에 방문해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가는 것도 유익하다.

올해는 지방선거 영향으로 7월 초순에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앞산 카페거리

앞산 카페거리는 대구가 커피의 흐름과 유행을 지배했던 곳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상징적인 장소로 대명남로와 현충로가 만나는 남영삼거리 주변에 위치해 있다.

앞산 카페거리는 40여 곳의 다양한 카페와 레스토랑, 음식점 등이 모여 있어 젊은 층과 가족, 친구들끼리 자주 찾는 인기있는 핫플레이스다.

전통 냄새가 물씬 풍기는 주택을 개조해 고즈넉하고 아기자기하게 만든 개인 카페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프랜차이즈 카페도 군데군데 자리하면서 다양한 분위기의 공간 형성으로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상당이 높다.

힐링 할 수 있는 분위기에 힘을 싣는 것은 앞산을 배경으로 한 아름다운 전망이다. 카페 테라스에 나와 커피 한잔을 음미하면서 앞산 풍경을 보는 순간 모든 힘든 일은 잊혀진다. 도심속에서 즐길 수 있는 자연의 정취를 만끽하면서 다양한 국적의 요리도 즐비하다. 유럽식 요리와 일본 가정식, 스테이크 전문점 등 레스토랑도 자리하고 있어 미식여행을 즐기기에도 안성맞춤이다.

안지랑 곱창 골목과도 가까워 카페골목과 연결된 상권으로 시민들이 즐겨찾는 곳이다.

◆이천동 고미술거리

이천동 고미술거리는 1960년대 문화재를 매매하는 업소들이 주로 생활하며 지낸던 곳으로 도심속에 남아있는 특별한 문화공간이다.

우리 선조들과 그들이 즐겼던 삶의 흔적이 느껴질 수 있는 곳으로 도자기와 고가구, 그들이 사용하던 민속품 등 다양하고 독특한 골동품을 경험할 수 있다. 현대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조상들의 생활용품들이 가득해,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고미술거리를 걷다 보면 옛 물건들에게 나오는 역사의 흔적과 삶의 방식 등을 체험하는 동시에 대부분 이곳을 운영하는 주인들의 해박하고 폭넓은 지식을 들을 수 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기본적인 업무 외에도 우리들의 뿌리인 문화유산의 가치를 느끼고 배울 수 있는 박물관에 온것 같은 기분이다. 특히, 외지인과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높아 한국 전통 문화를 알리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

작품의 구성과 상태와는 별개로 고전물품을 통해 우리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고미술거리 건너편에 위치한 벽화마을도 주목받는 장소이다. 골목 99계단에 벽화를 조성, 벽화골목으로 재탄생해 의미를 더한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림으로 벽화를 감상하며 계단을 오르면 사찰 서봉사가 나온다. 자연스럽게 전망이 탁 트인 전경을 차한잔 하면서 즐길 수 있다.

◆도심속 힐링은 앞산자락길 걷기

도심속에서 자연을 느끼며 힐링 할 수 있는 앞산자락길은 2009년도에 조성했다. 모두 6개 구간으로, 각 구간만다 특색있는 나름의 테마를 품고 있다.

메타세쿼이아길, 맨발산책길, 이팝나무길, 호국선열의 길, 꽃무릇길, 소원성취길 등 다양한 코스가 있어 취향에 맞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 도심속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자연 환경이 풍부해 가족들과 함께 오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정비가 잘 되어 있어 계절의 변화를 감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이다.

봄에는 벚꽃과 이팝나무 꽃이, 가을에는 단풍과 꽃무릇이 어우러져 황홀한 경험을 할 수 있는데 곳곳에 숨어있는 이야기들을 찾아가는 묘미도 있어 문화적 체험으로 정신건강과 함께 힐링하기에 최상의 장소다.

대구 남구는 도시와 자연,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매력적인 여행지이다.

앞산의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고 특색있는 문화거리를 탐방하며 여유로운 카페에서 휴식을 갖는 다양하고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삶에 지친 그리고 생활고에 허덕이는 우리들이 잠시나마 시간을 내서 숨겨진 보석 같은 장소 남구의 정취를 경험해 보기를 추천한다.

박성윤 기자 pkj@idaegu.com